東亞日報

發行所 京城府花洞一三八番地 株式會社 東亞日報社 發行兼編輯人 印刷人

民大期成運動의 發展

宣傳으로부터 實行에

民立大學期成運動이 發起된 以後로 地方各處의 響應이 空前의 盛況을 呈하야 或은 委員會를 組織하며 或은 講演會를 開催하야 熱을 吐하며 誠을 盡하는 것은 實로 吾人의 感賀不已하는 바라 그러나 至今까지의 運動은 趣旨宣傳과 機關設立에 止하엿슬뿐이오 아즉도 特志의 義捐과 實地의 力助는 發見치 못하엿도다 勿論活動의 時期가 全國을 通하고 宣傳의 時期가 尙淺함으로 이와갓흔 大事業을 火速石轉의 勢로 一朝에 現키 難하나 저어도 爾今에 至하야는 實際的으로 會員의 增加와 特志의 義捐을 待하야 그 實現을 可期할 것이 아닌가 朝鮮全道를 通하야 宣傳의 普及과 機關의 施設이 大略完備하엿는지라 일로부터는 實際 것이 아닌가 아 兄弟姉妹며 諸君은 이 事業의 運動을 泛然過視하려하며 또한 等閑視하려하는가 이 事業의 成敗는 實로 朝鮮民族全體의 文化向上의 能力을 試驗하는 機會며 이 運動의 遲速은 實로 朝鮮人個々의 人格的價値를 勘定하는 時期가 아닌가 試思하라 一個私人의 社會에 公約하고 經營하려하든 學校도 失敗或은 停止를 當하면 그 個人의 人格과 能力에 對하야 嘲笑의 標的이 되며 侮蔑의 材料가 되거든 하물며 朝鮮全道를 擧하야 熱狂的으로 民族的 大事業을 萬一이라도 有耶無耶의 裏에 葬하거나 或閑泛忽의 中에 過한다하면 民族自體의 體面上 汚損과 良心的 呵責은 姑捨하고라도 異族他種의 眼目으로 보아서 如何한 批評을 下하며 如何한 嘲笑를 加하겟는가 必曰劣敗民族의 常習的行動이라할것이 아닌가 적어도 四千年間文化生活의 背景이 잇고 二千萬民衆의 責任觀念의 良心이 잇는 以上에는 到底히 朝鮮民族으로서 世界的 存在를 主張할수 업스며 文化的 能力을 表現할수 업도다 勿論現下의 우리 社會에서 個人의 能力으로 或은 地方의 協力으로 一校를 經營完成하는 것이 잇슬줄을 아노라 그러나 이것이 곳 民族全體의 能力을 表現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民族全體의 體面을 保持하는 것이 아닐것은 瞭然한 事實이라 그러무로 一個私校의 起滅興廢로 말하면 그다지 民族的으로 能力問題가 되지 아니하며 그다지 世界的으로 體面關係가 될것이 아니나 그러나 적어도 今回의 民立大學期成運動으로 말하면 朝鮮民族의 總合意思의 表現이며 또한 그 總合意思를 旣히 世界에 向하야 發表하엿는지라 爾今에 至하야는 文化上으로 보아서 朝鮮民族의 死活問題라 四千年文化生活의 運命을 決定하는 最期며 또한 二千萬民衆의 自立的 能力을 試驗하는 機會라 하노라 如何한 困難이 來하며 如何한 逼迫을 當할지라도 民族의 總意思로 發表期成하려하는 民立大學을 完成치 못하면 이는 內으로 先祖後裔에 對한 罪人이며 外으로 異邦他族의게 對한 自毁自侮라 何故오 吾人이 先祖先民의게 相續한것도 文化이며 後孫後裔의게 相續할것도 文化가 아닌가 現在의 吾人은 在來의 文化를 世界的으로 發展하며 完成하야 一層優美雅麗한 文化를 未來億萬代後裔의게 傳授할 責任이 有하도다 그러면 그 理想을 實現하는 方途가 何에 在한가 이 곳 今回期成하려하는 民立大學이라 深奧한 眞理를 硏究함도 이에 잇슬것이며 健全한 輿論의 發達도 이에 잇슬것이 아닌가 이리하야 紛糾된 思想을 善導할수 잇스며 決裂된 社會를 團結할수 잇스며 破滅에 瀕한 生活方策도 案出할수 잇슬것이라 이와갓흔 千古의 偉業이며 萬衆의 熱叫하는 大運動에 엇지 一刻이라도 懈弛泛過하리요 一步를 進하면 萬古不朽의 光榮이 될것이오 一步를 誤하면 世界環視의 恥辱이 될것이니 現在의 朝鮮民族이 되는 者ㅣ 大局의 眼이 有하고 責任의 感이 잇스면 엇지 力을 倂하고 心을 竭치 아니하리요 兄弟姉妹며 爾今에는 民大期成運動이 宣傳期는 已過하고 實行期가 來到하엿도다 講演보다 義捐이며 施設보다 收合이니 朝鮮의 文化史는 諸君의 芳名을 苦待한지 已久하며 民大의 誕生에는 諸君의 義力을 渴願코자하는도다 兄弟姉妹여 諸君이 有始無終한 廢物이 되려하는가 또한 有爲多望한 人格을 完成하려하는가 이 곳 二千萬兄弟姉妹의 良心에 訴코저하노라

社會主義批判(六)

一記者

修正派社會主義(續)

베른스타인이 맑쓰의 非經濟的要素를 認識치 아니하얏다 함은 最初를 云하는 것이오 決코 最後까지 輕視하얏다 함이 아니다 오히려 맑쓰는 最後에 非經濟的要素를 重視하얏다 함은 『맑쓰와 엥겔쓰가 社會進化上에 最初는 非經濟的要素를 輕視하얏다』함에 依하야 明白하다 그리고 엥겔쓰의 一八九〇年의 書簡과 一八九四年의 두 書簡이 前後가 相異하야 맑쓰와 엥겔쓰의 處地를 修正하얏고 따라서 그들의 唯物史觀이 終始一貫되지 못하고 最初의 主張에 屢次修正한 事實을 指摘하야 베른스타인은 如下히 말하얏다

『今日 唯物史觀을 信하는 人々은 最初에 맑쓰의 非經濟的 要素를 輕視하든 것을 不信하고 其後 非經濟的 要素를 是認하든 形式을 信하게되얏다 換言하면 彼等은 生産力及生産狀態의 發達과 勢力의 外에 法律, 道德, 各時代의 歷史的及宗敎的 傳統 地理的 勢力及 其他事情에 對하야도 充分히 參酌하여야 될것을 知하얏다』 할뿐 아니라 그는 다시 맑쓰의 唯物史觀의 基礎를 成한 經濟的關係가 社會進化의 決定力에 對하야 次第로 그 割合이 減少됨을 如左히 言하얏다

『科學과 藝術과 社會關係의 모든 連鎖은 今日의 以前에 比하야 經濟的으로 從屬되는 것이 少하고 또 그 結果로 技術的 經濟的 進化와 他社會的 傾向의 進化間에 原因結果의 相依的關係는 漸々間接的이 되야 經濟的 進化의 必要가 他社會의 形態를 指導하는 힘을 失하게 되얏고 唯物史觀에 對하야 맑쓰와 가튼 天才로도 最初發見이 最後結論에 至하야 種々의 誤謬를 生하얏다』고 痛論하얏다 如斯히 그는 맑쓰의 唯物主義歷史解釋에 反對한 것은 歷史發展에 對하야 經濟的 進化의 勢力과 影響을 無視하지 아니하고 反히 其勢力과 影響을 是認하얏스나 다만 反對하는 것은 맑쓰의 唯物的 機械的 歷史觀 卽 一方으로 經濟的 進化가 社會進化上에 重要한 原動力이 됨을 是認하고 更히 其外의 要素가 社會進化上에 重要한 原因이 됨을 說定함이니 其他要素라 함은 勿論理想이다 卽 彼는 社會主義에 對하야 實現的 唯物的 要素뿐 共히 理想主義的 要素를 高調하야 彼의 修正派社會主義의 基礎를 築하얏나니 此點이 修正派社會主義의 立脚點인 同時에 近世에 對한 社會主義運動에 가장 重要한 意義를 持하게 된 것이다

復位한지 一週年餘의 黎總統(七)

在上海 春艇散人

黎總統의 困境에 陷한 原因

以上의 複雜한 理由와 黑幕는 果然 黎總統으로 하야금 任期까지 四億萬의 元首가 되지 못하게 하시나 正式憲法이 成立되지 아니하고 또 任期解釋이 完全히 되기 前임으로 엇지 마몽안는 그대로 扶支할수 잇겟스나 最近 一個月以內에 困極에 陷하게 된 것은 大概 左와 如한 原因이 伏在하다

一, 中國의 現行基礎法은 臨時約法임으로서 正式憲法을 制定하기 爲하야 民國六年에도 起草中이엿섯고 其後 廣東에서 開催된 非常會議에서도 第二讀會까지 經過하얏더니 昨夏에 國會가 恢復된 後로 制憲問題가 第一要案이 되야 制定하기에 着手中이나 省憲法의 贊否와 및 政爭과 金錢에 沒身하는 議員들은 誠意로 出席치 아니함으로 法定人數가 不足하야 恒常 流會되는지라 黎總統은 此를 憫悶히 여이여서 議員을 金錢으로 排制하기를 議員團과 相議하고 制憲費로 每日 出席人에게 二十元式 支給하고 此經費는 海關建築費中에서 流用하기로 決定하얏든바 國務院에서는 此가 總統의 自意決定이요 國務會議에 通過한바가 아닌즉 約法에 定한 責任內閣制를 無視함이라하야 張紹曾以下가 辭職書를 提出하고 此를 利用하야 遂黎派는 總統이 違法이라고 大攻擊을 하게 된 것

二, 『馮玉祥은 基督敎的 軍人』이라하며 또 『軍人은 政治不干涉』을 聲言하야 國民의 信仰이 頗有하며 精銳一師를 統率하고 陸軍檢閱使의 職으로 南苑에 駐紮하야 北京擁護의 任에 當한 터이라 自己의 私人 薛篤弼을 北京崇文門稅關監督으로 任命할 事를 要求하니 內閣에서 처음에는 反對하다가 終末에 通過되고 黎總統은 此를 終是 贊成치 아니함을 알고 此를 乘하야 黎總統과 馮玉祥사이에 離間을 夭케다고 생각한 國務院秘書長張廷鍔은 任命辭令書를 가지고 總統府에 入하얏다가 그대로 나와서 總統이 捺印을 拒絶한다고 流言을 散布하야 馮玉祥으로 하야금 黎에게 反感을 두게 한 後에 一派曹錕의 命으로써 逐黎運動에 着手하게 된것

三, 黎總統은 우에 말한 것과 가치 極히 無能하고 無力하야 他人의 脅迫과 利用을 受한 것이 여러번이나 그러나 그의 平生자랑하는 것은 軍閥을 養成하거나 政黨을 樹立하야 自己의 私的地位를 擁護하지 아니하라 함이라 그럼으로써 軍閥의 勢力이오 政黨의 天地인 現下 中國政界에서 極히 孤寂하야 堂々한 四億萬의 元首로써 其實力은 一個 督軍이나 護軍使에도 未及함은 總統의게 同情할바라 이럼으로써 各軍閥及政黨은 利用하며 逼迫하기가 날로 甚하야 갓다 이와갓튼 現狀에 處한 黎總統은 自己의 孤獨하고 强迫밧는 것을 不平이 되어 여서 『지룡이도 밟부면 動한다』는 것과 가치 從來에 熱心을 少變하야 目下의 失勢한 政學會一派를 接近하얏다 그리하야 智慧만코 手段이 能爛한 學會는 黎總統을 包圍하고 李根源 彭允彝는 閣席을 占하야 政策을 運轉하며 張耀曾 章士釗 等은 議員及政界로 活動하게 되엿다 此를 看破한 直系는 自己原定計劃에 對하야 妨害가 生할가 念慮하야 急激한 手段으로써 逐黎運動을 勵行케 되엿다

해바라기 (11)

廉想涉

三 — 三

명희에게는 예술에서도 어들수 업고 진리에서도 어들수 업스며 신앙에서도 어들수 업고 그러타고 단순한 성욕의 만족으로만으로도 어들수 업는 그 무엇에 주렷거나 혹은 그 무엇이 잇다가 업서진 마음속의 비인 곳을 채우랴거나 또는 잇다가 업서지기 때문에 생긴 쓰린 상처를 고칠만한 무엇인지를 어드랴는 고통이 잇섯다

이것은 자긔를 사랑하야 주든 운명이 인생의 가장 훌륭한 청년에게 차밧처주엇다가 아모 긔별도 업시 별안간에 떵위로 떠러트려 노은 것을 원망하면서도 또다시 한번 차밧처주기를 기다리며 애원하는 고통이다 그러나 영희는 자긔의 예술이 그러케 하야주리라고 밋고 바라면서도 그 미드며 바라는 바가 헛되지나 안을가 하는 근심과 두려움을 의이지 못하야 다시 운명과 인간에게 하야 한번 더 인생의 상々봉에까지 바처 달라고 애원을 하는 것이다 여긔에 영희의 한층 더한 새로운 고통이 잇는 것이다

혹시는 정신을 가다듬어 밤가는 줄도 모르고 이 책 저 책을 뒤저거리거나 네모진 구멍에다가 붓대를 놀리고 안젓다가도

『......당신은 참 정말 조선의 신흥예술을 위하야 일생을 바치시요 조선이 가진 단 한아의 보배는 아마 당신이겟지요 이겟지요가 아니다 확실히 그러하리다 고나는 단언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장래에 남의 안해가 되고 어머니가 되리라는 예언만큼은 확실한 일이겟지요』라고 격려를 하야주기도 하고 『......당신의 예술이 아츰해人발커럼 솟아올늘때 세계는 얼마나 놉낫가요......아 나는 그날을 기다림니다 그날의 행복을 마듭니다 그러나 나에게 그 행복을 가치나눌 권리가 잇슬가요』라고 어린아이 수작가튼 소리를 열심으로 한밤 두밤씩 적어보내며 칭찬을 하야주든 삼년 전의 그의 말이 문득 생각날 때는

『내가 이 견해서 무엇하누? 누구더러 보아달라구 지금 이걸 쓰거 거리누?...예술이란 무어냐? 인생이란 뉴어냐? 무슨 까닭에 이 신산한 세상을 아즉 두밧 십년을 질질 끌려가며 살라는구? 하는 생각이 저절로 새도 업시 목바처 올려와서 무심중간에 붓대를 들엇든 손가락을 악쎄무러 몸에도 맛섯다

그러면 영희는 예술도 세상도 사람도 다 던저 버리고 자긔자신 까지 그립지를 감추겟느냐 하면 그리기에는 넘어도 용긔가 부족하얏다 귀치안타 살수업다 하면서도 살아가지 안을수 업는 것이 이 생이다 귀치 안타 실타하는 것은 역시 살녀구하고 원하기 때문이다 자살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요구와 희망과 장기가 편벽된 사람만 능히 할수 잇는 일이다 편벽되다는 말은 만치 모바다는 뜻이니까 한 길만을 파다가 그 길이 막히면 목숨을 끈는 수밧게 업슬것이 안인가 재화만을 바라든 사람이 그것을 엇지 못하면 먹이라도 딸수밧게 업고 사랑만을 구하다가 그것이 달하지 못하면 쥐잡는 약이라도 먹을것이요 예술만을 자긔의 생명으로 알는 사람이 에서 실패하면 강렬교로라도 나가지 안코면 안십이 아니 될것이다

四海閃光 千里駒

感覺生涯

飮食을 選擇함에는 味覺嗅覺等을 使用하지마는 間或世人中에는 此等感覺으로써 生涯의 資本을 삼나니 佛國酒類輸入者는 往々로 葡萄酒嘗味者를 雇用하야 善惡의 評價를 取하며 終日토록 酒類맛보는 것이 일이나 如斯한 事役이 單純치 안코 注意에 注意를 加하야 名聲을 保持한다 戰爭中에 葡萄酒專門家는 劣等酒의 맛만 보앗슴으로 技能이 減하야 生涯가 不能하엿다 한다

茶味맛봄하는 專門家는 每日執務時間이 곳 茶話時間인듯 하지마는 其實은 甚한 苦役이며 間或中毒되는 弊端도 不無하다 한다

煙草에는 觸感을 使用하나니 吸煙으로써 煙草의 品質을 評하나 專門家는 一摩擦로써 其品質의 好不好를 擇하며 其外에 羊毛와 棉花도 觸感으로 上中下의 等級을 擇한다

臭感을 使用하는 物品이 多數한 中에 特히 香水에 多用하며 油類嘗味者는 經驗에 多數하고 또한 油의 種類를 臭感으로써 等級을 分別하는 專門家도 多하다

社告

本支局管內 東倉分局長 金鳳鉉君은 事情에 依하야 解任하고 其代로 韓錫圭君을 任用하얏사오니 如此 照諒하시옵소서

本支局記者 申泰鴻君은 事情에 依하야 解任하옵고 其代로 金炳翊君을 採用하얏사오니 如此 照諒하시옵소서

東亞日報 安岳支局 白

今般本支局總務兼記者 金公良君은 事情에 依하야 辭免하얏사오니 愛讀諸位는 如此照諒하시옵소서

東亞日報 定州支局 白

市場

八圓臺出現

朝天候는 阪仁共히 晴하고 各地는 다 弱하게 報하엿더라

場은 阪地入港遲着으로 當地硬派의 攻勢를 因하야 前場止値보다 十一丁高步로 二十九圓七十錢에 始하엿스나 阪地後場初付五圓을 割下하니 當地亦急轉直下로 九圓十五錢까지 激低하야 二十錢臺에서 相 ... 錢을 傳하얏고 合地氣配다 弱하게 傳하얏슴으며 當地堅二派의 活動이 優勢의 便임을 따러 場面은 自然 軟化中에 始하니 ... 도 割下 二十八圓八十錢으로 初付되엿더라

▲第二節 當은 亦不成에 中은 二十八圓六十錢에 四十錢으로 四十錢에 一日有할 先限은 阪地三節 三十七錢에 反하며 傳하얏슴으로 九十錢에 始하야 一文을 高하엿스나 軟派의 活動으로 八十一錢까지 落으로 最低六十錢에 止하다

▲第五節 當中兩限은 다 先限은 大阪又放落四圓○了이라 始値八十五錢을 最高로 漸低 ... 六十七錢으로 止하다

▲第七節 當中兩限은 不成에 先은 各地止値反撥로 稍히 八十七錢에 止하야 高低의 差는 三十四丁

一節	二十八圓八十[illegible]
二節	二十八圓八十錢
三節	二十八圓八十九錢
四節	二十八圓九十一錢

同日後場

[illegible]	二十九圓二十五錢
[illegible]	二十九圓

大阪期米 廿七日

五節	二十八圓[illegible]
六節	二十九圓
七節	三四.[illegible]
八節	三四.三○一
九節	三四.三○
止値	三四.四一

第六期營業報告

貸借對照表 (大正十二年六月三十日現在)

資産之部: 未拂込資本金 [illegible] / 諸貸出金 [illegible] / 諸預ケ金 [illegible] / 他店へ貸 [illegible] / 有價證券 [illegible] / 假拂金 [illegible] / 營業用地所建物什器 [illegible] / 金銀有高 [illegible] / 合計 [illegible]

負債之部: 資本金 [illegible] / 諸積立金 [illegible] / 未拂配當金 [illegible] / 諸預金 [illegible] / 支拂手形, 送金, 爲替手形 [illegible] / 本支店未達勘定 [illegible] / 他店ヨリ借 [illegible] / 未拂利息及未經過割引料 [illegible] / 前期繰越金 [illegible] / 當期純益金 [illegible] / 合計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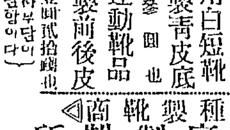
損益: 前期繰越金 / 當期純益金 / 合計

此配當計算左와如함: 諸積立金 / 株主配當金(年八分) / 役員賞與及交際費 / 後期繰越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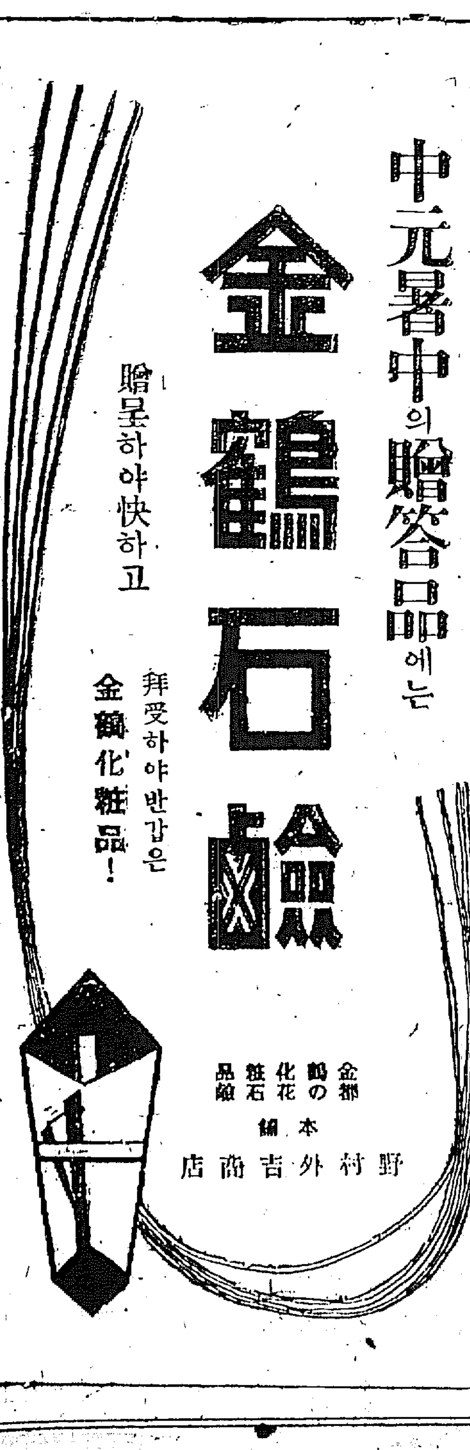
大正十二年七月 光州郡光州面北門通九番地 株式會社 湖南銀行

日本唯一의 精良品 男女防疫 삿구 丁子堂

最新內服藥 鼻 지쿠노-루 蓄膿症 … 肥厚性鼻炎 三聯製藥社



青年紳士諸氏 改良特製靴名 ◇紳士用白短靴 ◇白쓰子製靑皮底 ◇學生運動靴品 ◇白쓰子製前後皮 體裁優美 價格低廉 各種製靴商 고무底製靴所 京城府仁寺洞一一○



中元暑中의 贈答品에는 金鶴石鹸 贈呈하야 快하고 拜受하야 반갑은 金鶴化粧品! 金鶴の化粧石鹸 本舖 野村外吉商店

蚊帳 모긔장 壹毫不加 正價金에 浩氣的大發賣 元豐號 京城南大門通四丁目

朝鮮四千年奇譚 表題 奇人奇事錄

珍談奇話 東西古今 / 現代新釋義 / 小說社會 貧의淚 / 小說社會 罪惡이씨 / 小說社會 단쇼 / 英鮮對譯 偉人의聲 發行所 京城西大門外阿峴 文昌社 (振替京城四六二)

東京蒲田驛前 日本自動車學校

花柳病에는 毒掃丸 東京神田 山崎帝國堂

陰萎靈藥 スペルマチン錠 男性生殖腺(睾丸)製劑 人生幸福의 源泉, 家庭和樂의 根源 大阪市 武田長兵衛商店

梅毒新藥 六〇六號 ヨートカリ丸 代用內服藥 販賣所 博愛堂

夏衣次特價販賣 改良細白苧 大興商會

루얼封鎖解除了

聯合國은「루얼」地方에在한交通封鎖를解除하얏더라(伯林二十六日發)

獨루얼經費募集

伯林報道에依하면獨逸政府는「루얼」地方의紛擾에對한經費의不足을補充키爲하야銀行債를發行하기로決定하얏는데公債는紙幣로써募集하리라더라(倫敦二十四日發)

佛對英回答脫稿

獨逸賠償에關한公文에

佛國首相「포앙카레」氏는英國의獨逸에對한賠償問題에關한公文에對하야回答案을脫稿하고其謄寫를白耳義에送附하얏더라(巴里二十六日發)

三國共히回答에同意

佛, 白, 伊三國은賠償問題에關한英國公文草案에對하야回答코저同意하얏다더라(巴里二十六日發)

로會議調印終了

近東講和條約及關係諸協約은二十四日當地에서正式으로調印되얏스니即調印을終了한것은講和條約外에海峽協定「트레쓰」國境規定及通商協定其他各宣言書及議定書等約十八通餘이오「유고스나비아」만은同國에割當된土耳其債務의分擔額이過多하다는理由로故障을唱道하야講和條約의調印如何에不拘하고三個月의猶豫를提出하얏더라(로싼누二十四日發)

米土單獨協定內容

「헤드랄뉴-스」는通信社情報에依하면瑞西駐箚米國公使로「로싼누」會議의非公式協聘人인「조셉·그류」氏는土耳其全權「이스메트·파샤」와二個協定에就하야同意한바其第一은米土單獨協定으로通商關係에關한것이요第二는土耳其에在한米國民의位置에關한것이더라(倫敦二十五日發)

『各國은新戰爭準備』

前英首相「로이드조지」氏演說

英國前首相「로이드조지」氏는倫敦에서「메소디스트」敎徒에게對하야演說하야歐洲現在의狀態는陰鬱하야危險한氣分에充滿한바此는各國民이共히新戰爭에對하야準備中인所以라云々하얏더라(倫敦二十五日發)

軍縮委員案否決

『英國軍縮은當分不能』

勞動黨首領「마-그도날드」氏가提出한國際軍備制限委員任命에關한動議는佛國의賠償及安全問題가未決中인以上英國에서軍備를縮少하기는不可能하다고陳述하얏더라(倫敦二十六日發)

米航軍費

膨大傾向

米國陸軍航空隊「파트릭」將軍은事實上現會計年度에서二倍의支出을見함과如한可恐할豫算을次期議會에要求코저하는案을承認한바右는英佛兩國航空隊에對한最少限度의航空軍組織으로二千五百萬弗을計上하얏더라(紐育二十五日發)

獨逸前皇族等

新活動開始乎

獨逸前皇太子는獨逸前皇帝를訪問中인바其目的은明白치못하나和蘭官憲은前皇族의活動에恐慌하는狀態이더라(암스텔담二十六日發)

實業界는又惡化

英下院議員演說

下院自由國黨員「마켄나」氏는「리든」에서演說하야「今年크리스마스」頃에實業界는更히惡化될터인바此로因하야百五十萬人의失業者를生케되리라고指摘하얏더라(倫敦二十六日發)

英濠航空承認

英國濠洲間의飛行船航路開始件은內閣에서此를承認한바右飛行船은百二十人의乘客을搭乘케할터이며又旅行中에는旅客의愉快를圖키爲하야諸種設備를施設하얏는데該船은印度外지二人濠洲外지五人의旅客을搭乘케할터이라더라(倫敦二十六日發)

列車衝突頻々

又復死傷者數百

『웨나스쇼』間의鐵道大慘事에關하야는救助隊를派遣하야破碎列車中으로부터死體百六十을收容하얏고尙且『로쫘나』行匈牙利列車도衝突되야死者二百負傷三百을出하얏더라(소퓌아二十六日發)

領海擴張不承認

米國의禁酒令範圍와英國態度

「크리-니」紙에서探知한바에依하면米國領海에酒類의輸入을禁止한米國禁酒令에關하야米國에게問議中인英國委員은아직交涉을終了치아니한바所謂米國의領海擴張要求에對하야英國에서如何한態度에出할는지는아직不明하나然이나英國은領海를十二哩로擴張하는事에는承諾을與치아니하리라더라(倫敦二十五日發)

鐵道警備案可決

外交團對中國政府提出

中國側當局에依하면中國政府에서는更히第二回의鐵道警備(第一案에對한細目案)를外交團에提出코저하던바「문레」將軍은旣爲此를作製하야中國政府에提出하얏다더라(北京二十五日發)

『排日은人民自發的』

顧外交對新聞記者陳述

外交總長顧維鈞氏는二十六日外國新聞記者에게對하야左와如히陳述하얏더라(北京二十六日發)

中國은目下推移時代임으로各國의同情을得치아니하면不可한바余는個人으로最近外人의生命財產이損失되는事件이起함에對하야遺憾으로思하노니中國은只今政治上政府의存立上變遷이無雙한狀態에在하나共和國으로最初의試驗임으로種々의阻害가有한것은不得已한事勢이니各國은同情으로外中國의目的達成에援助를與하기를希望하는바이며又排日은自發的으로惹起한것임으로此를抑止하기는困難하나日中兩國官憲은協하야有利한解決을圖코저하노라云々

宣統帝의

聰明英斷

宣統皇帝의宦官放逐의英斷을[illegible]하야忠臣의聲望이藉々한某氏[illegible]
一、新住地를選定하야皇帝의遷居를請求할事
二、民國에通告하야外國에留學케할事
三、歷史上或은世襲의珍器寶物은皇帝의身邊에留하고其他諸物品은民國敎育의參考品으로提供하고一切金銀古物은全部買却할事
其他二項을建議하얏는데聰明한皇帝는此를容許하리라고觀測되더라(北京二十六日發)

레닌氏容態惡化說

莫斯科來電에依하면「레닌」氏의身病은突然惡化하야再次臥床하얏다는說이有하더라(君府二十六日發)

代表更迭通告

露國對中政府

露國政府는「욧페」氏를召還하고「카라한」氏가北京으로來한다는公式通知가有하얏더라(北京二十六日發)

카氏派東中止說

勞農政府外務次官「카라한」氏의東洋派遣은莫斯科의其後情報에依하면確實치아니한바或은政治上理由로中止될는지도未知이라더라(倫敦二十六日發)

豫備會商은

十二回로最後

二十七日第十二次日露會議에서는國際義務에關하야舊條約債務及私有財產沒收에關한雙方의意見을交換할豫定이나此等問題는今番豫備交涉에서는到底히意見의合致點을發見치못할터임으로他日本交涉을開催하기外지留保하더라도無妨하게되얏스며又勞農政府側에서는承認에關한意見을詳述한後極東에서共產主義의宣傳을自決코저치아니한다는意見을[illegible]「카라한」氏와의交代를急히하는터임으로會議는二十七日會商으로終了되리라더라(東京電)

國際問題를先番議

最後會商으로看做되는二十七日의日露第十二次會商은前回에서未決인國際信義問題를爲先審議할터이오次에諸事業의作製에關하야尼港事件陳謝의形式과利權의種目等重大問題에臨할터이나此는長時間에亘할터임으로會商은長時間에亘하리라豫期되더라(東京電)

豫備交涉確認問題

日露正式交涉에對한日本政府의意向은二十四日現在의豫備程度에서此를開始하더라도無妨하다고看做하나二十七日의會商形便에就하야는「카라한」氏나又는露國政府의提議에應하야確實히開始케되면更히國際信義問題에就하야勞農政府의意向을聽取하며又今番의覺書는正式交涉을開키爲한基礎가될것인즉此는兩國政府의確認을求하야交涉力을有效케할터이라더라(東京電)

覺書完成

日露兩國의非公式會商에[illegible]覺書는露國側으로부터二十六日中으로外務省에提出할터이든바「욧페」氏는作製할豫備交涉에當하야相當한困難이生한듯하야二十六日에는早朝부터秘書「레빈」氏를督勵하야作製코저하얏스나遂히夕刻外지에는完成되지못하고覺書의草稿가全部完成된것은午後八時半이엿슴으로右覺書는二十七日에提示될터인즉二十七日會商에서는右에對한兩者間의討議를行케될터이더라(東京電)

會商延期

二十八日로

外務省發表=二十七日의日露會商은「욧페」氏로부터病으로因하야明二十八日로延期하자提議하얏슴으로川上代表도此를應諾하야二十八日로開催하기로하얏더라(東京電)

明年新規事業

朝鮮其他各地

朝鮮其他各地의明年度豫算은一般豫算과同樣으로本年度에도緊縮方針에依하야整理節約方針에從하야編成할터임을大藏當局으로부터各地當局에通牒한바이라는趣旨에依하야一切豫算을編成할中이나其內容은詳知키不能하나新規事業이라指目할것은大要左와如하더라(東京電)

▲朝鮮總督府 朝鮮大學建設費 百五十萬圓 京城에新設될바의大學豫科卒業生을收容할理科大學의建設費及基地買收費 ▲鐵道建設改良費 總額千五百萬圓計上의繼續事業、十三年度는咸興線中의西湖津으로부터吉州郡에至하는咸鏡北道境界外지約五十哩의延長新設費로若干計上 ▲淸津築港費 仁川及元山의兩港은共히十二年度로外竣成을見할터임으로今回는釜山築港費若干을計上 ▲其他 高等普通學校、普通學校의增設費等

關東廳 ▲警備擴張費約七十萬圓增額 警官三百名을增員하야滿鐵其他의警備에充用 ▲中國人中學校新設費約四十萬圓 ▲齊藤府附近의道路改良費

政府外米買入

日本政府에서는其所有外米를換賣코저約十萬石의外米新穀을買入하기로決定되야來八月에東京及神戶에서申請을受理한다더라

航空界의大福音

海軍省에서는航空界의發達에伴하야今番에海上航空圖를發行할바同航空圖는海上飛行用의것으로東京、橫須賀、吳、佐世保를基點으로하야臺灣、朝鮮、滿洲를包含한것이오十七圖에分作된것인데航空機操縱者의大福音이라더라(東京電)

爆擊大隊

新設計劃 場所는國境乎

大正十三年度陸軍豫算編成方針은現內閣의緊縮方針에基하야一切新規事業을中止하기로하얏스나大正十二年度에計上하야大藏當局과의間에妥協이未遂되얏던航空爆擊大隊의新設을歐米各國의趨勢에鑑하야新規事業으로計上하기로決定하얏는데其內容은約五百萬圓三個年繼續事業으로十三年度에는百三十萬圓을要求하게되리라하며設置場所에는歐米各國의實狀에鑑하야地勢氣候等關係를考慮한後朝鮮國境方面으로決定할豫定이라더라

一朝有事

一朝有事할時에는爆擊用으로使用할計劃이며英國은空軍을獨立케하야最近各國의爆擊航空隊의擴張을見하며大形航空機의獎勵를[illegible]大部分은旅客輸送의大形機가漸次增加하는中인바『에-쓰자-사』에設置되얏고英國의航空機는現在二千餘臺인바其六七分은爆擊用으로看做하야도過誤는無할지며佛國은近間夜間의各爆擊隊가分岐되야現在에는各三十聯隊가有하야爆擊方面에配置된바其數는五百臺內外이며又米國은各個[illegible]

鮮銀配當

八步로內定

鮮銀의配當은年八步로부터六步로減하는總督府의要求에對하야美濃部總裁는極히詳細한說明書를總督府에提出하야八步案承認을懇請하얏든바二十六日總督府에서는今回에는特히原案을承認하고今後에는整理의進捗如何에依하야或은配當을減하야銀行의健全을期할것이라하야保留附承認을與한故로茲에今期利益配當案은遂히年八步로內定하얏스며又理事의專任에對하는東京支店長阿部秀太郞氏의昇任은不適任이라하야承認을與치아니한結果美濃部總裁는結局有吉政務總監의決定에一任하얏다더라(東京電)

總裁는辭職乎

美濃部鮮銀總裁는滯京中今期配當八分案의利益處分에關하야有吉總監에게認可를得코저交涉하얏스나[illegible]

日本과通商拒絶

露國極東殖產局

露國極東殖產局에서는日本企業家와의一切契約乃至協定은一般的으로拒絕하기로하야今回尼港航海開設에關한日本商館과의契約締結拒絕을爲始하야日露通商協定이成立되기外지는森林漁業其他通商의契約은一切拒絕하게되얏더라(海蔘威二十四日發)

生產能率增進과

畜牛獎勵의緊要

望月血淸所長談

目下開催中인畜產技術官會議에參列키爲하야入京滯在中인總督府獸疫血淸所長望月瀧三氏는往訪한記者에게語하되

朝鮮牛의改良은이미定評이잇는바이어니와現在全鮮의牛頭數는約百六十萬頭인바牡牛와牝牛의比例는三과一에可當하니元來朝鮮牛의系統은江原道의高原地帶產과咸南의產及平北原野의產等三大系統으로될것이오秋風嶺以南에下하면現著히體格이小하다牛價는食用으로又는牛乳의使用으로年々其需要가增加할것은勿論이라그런데朝鮮에서는모든關係가잇서서그能率을增進케할必要上으로도牛의繁殖獎勵는緊要하다第一에朝鮮의農業耕作에牛는不可缺할것이오그뿐아니라山間農村間에서는肥料及食料의[illegible]

生產能率 上牛는重大한[illegible]

保險法實施 如何

朝鮮에는尙今保險業法의實施가無하야朝鮮火災及朝鮮生命과如한會社는總督府의特別命令에依하야設立되얏든것인바此로因하야朝鮮火災保險會社와如한日本及滿洲方面에支店을開設코저하나保險業法에依하야設立한會社가아니라는理由로[illegible]

共進出品豫定超過

副業品共進會의出品은益々盛況이오이미七千餘點에達하얏다는바[illegible]

現在狀況

[illegible]

生活程度

[illegible]

貸出回收困難

[illegible]

繩叺筵生產高

朝鮮全道의大正十一年十一月로大正十一年十月外지一個年間繩、叺、筵의生產高는改良叺[illegible]

金融界

[illegible]

府內郵便貯金

[illegible]

集金郵便制度改善

[illegible]

滿銀開業期

滿洲銀行은八月一日부터開業할[illegible]

西鮮殖鐵復舊

[illegible]

土地建物總會

大正土地建物株式會社는二十七日[illegible]

消息

▲李勇吉公子 二十七日午前六時京城驛着[illegible]
▲有吉政務總監 去二十六日午後四時에京城[illegible]

橫說竪說

▲近來에官製敎育會가盛히發起되는現象이다▲日朝鮮敎育會、日京畿道敎育會、日京城府敎育會라하야吉總監時實知事谷府尹이次第로그會長의任에當하엿다[illegible]

商況

京株賣買高

大阪三品

各地穀物市場

仁川期米市場 硬直逐慘敗

後場軟步

外國經濟電報

倫敦銀塊

紐育銀塊

紐育棉花

大阪株式

大阪株式延取引

株式市場 京取暴騰 株界의三巨頭

二十七日京取市場에各地氣配入安東安取는十八圓三十錢과六十錢으로大阪大新은七十五圓

京株賣買價

株名	前場 當限	前場 先限	後場 當限	後場 先限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在外同胞慰問

會員芳名 (五八)

[illegible]

小計三百六十三圓也
累計二萬三千六百六十八圓四十七錢

以上會員은慰問會芳名錄中第五回에掲載되엿든바激勵錢合計一百四拾四圓을[illegible]

理髮業取締規則

팔월일々부터시행된다

[illegible]의경우에는 일인이상의 유자격자를둘일
三, 출장하야 영업을하는때에는 유자격자에 한할일
四, 자격시험은 경성부와 인천(仁川)부에서 행할터인데 [illegible] 못 영업하라는자에게 한함
[illegible]하면 아니될일 이외에도 소독에대한 자세한규측이 발표되엿더라

[illegible]

十六歲少年의[illegible]

[illegible]

地理關係를앞세우는 各當局者의苟且한辨明

그소위 디리관계라는것이 사람마다 다달으다
결국은 다시 조사하여본다는 밀우는 말에 그처
當初부터 誠意업슴을 遺憾업시 暴露

左右間再調後에

엇지하던지 처치하겟소
齋藤總督談

첫재는 地理關係
經費關係도 잇고

아무러턴지 다시 한번 조사를 하겟다는 결국부득요령의 말
京城府當局者談

세가지의 理由로

이촌동 뎨방은 그만둔것이요
原土木部長談

맘을노코

살게하여주시요
二村洞總代 金龍爺氏談

洞民의 再次陳情

경찰의 간섭을 받어가면서

鍾路六丁目患者 怪疾은 아니엇다

일간되원하게 된다고

『平和의母』는

洋襪罷業工 全部就職

森林이 鬱蒼한 禁養林을 國有編入

관계자가 상경진정하엿다

하와이학생에게 千餘圓을 寄附

신의주에서

鳳山郡에도 教會裁判

회당과 전도실을 인도하여 달라고

全州公普授業料問題는 郡廳獨斷의 暴擧

가옥세부가금평균오원이과하다하여서 그를주리고
貧戶에게 年十二圓式徵收

京釜線列車開通

이십육일오후북행부터

鳥清間中央線

사오일후개통

廣州實村面에 家屋二戶倒壞

내물이 넘처서

三公園에 돌려가면서 木曜日에 洋樂演奏

첫번은 팔월일일에 남산공원

學友會講演團

진남포

하와이學生團 開城到着延期

吹笛橋附近에서 老婆가 溺死

平原海岸漂屍

京畿道의 雨量

民衆講座는

吉林邊境에 赤軍增加

一次斷指로 病夫가 蘇生

檢疫은 徹底히

安東金氏門中에

경찰의 눈이 번득인다

野球의 覇權은 徽文軍에

賭博軍 동처서

仁川外里에 棄兒

暗夜點燈도 업시 길을 가로막어서

동행하던 자동차가 부서지고 운뎐수 두사람도 각각 부상해

大同江에서 少年溺死

시톄도 못발견

下水道工事中 白骨發掘

그곳은 연못터

朝鮮新聞主催 大野球戰

팔월일일부터 칠일간을 계속

白晝路上에 强盜

눈에 모래를 뿌린후에 돈을 빼서가지고 도망

◇ 만선중학야구계에 패권을 잡은 휘문군 ◇

大氣象報

◆ 휴지통

治積胸痛丸 靑山藥房

康明花 朝鮮劇場

熱血兒 西部의 勝者 團成社

이해반드집 京城齒術院

開業廣告 順陽號

ClibPDF - www.fastio.com

泣血鳥 (54)

李熙喆作 盧壽鉉畵

그러나 룡자는 아니울랴도 아니울수업는처디다.

ㅡ룡자는 태모로 이미 룡칠삭이나 지낸몸이다. 그러케자리의배부른것을 남에게 보이지아니하랴고 애를쓰지마는 ㅡ 그애쓰는 수접은처녀의맘과 애가 아래로축처지어 배ㅅ속을부엇으로 쿡々쥐여지는듯하고 또는 참자가 뒤트러올나오는듯 힘버에 그커세상이 실혀지는것뿐이다. 말하기도실타 먹기도실타 모든것이 원망스럽기만하고 귀찬케만 생각이되엿다.

게다가 집을쫏겨난 슬픔과 그니마 남편까지 병원에드러보내고 외로운방안에 쓸々히혼자안커잇는것을생각하면 가슴이 터지도록 「오앙々울고십흔 생각이 룸켜가치 이러나고는한다. 더욱이요사이는 사람々々마다 새해를마진다고 깃버하는때다. 문밧게서는 [illegible] 철모르는어자들의 우숨ㅅ소리가 련방들녀온다.

「아이고 내가무슨죄를지고낫가에 이러케……」

[illegible] 깃브게지내라는 그것저에 사람들이 이러타커러타 울고불고 야단하는것을보니 종청이가신모양이다. 그러고 그는 룡자의집에 대한사정을 고러케알아보려고 애쓰지도 안는다.

「……그러구 오늘은병원에도 가봐야지 그버한번가보고 여태엇아나갓스니 네남편이 오죽답々하려구 가라 나도갈터이니 괴롭지만 몸을좀움지겨 그림테너의집에서는 왜소식이업나……」

하고 고모는 커리에 싱이 와라진소리로 룡자를재촉하드시 말하엿다. 룡자는 고모가방에 드러오자 니어 울음소리를 끈첫다. 그러고 겨오 몸을 몸듯이러나안커 고모의말을듯다가 내희집에서는 왜소식이업나하는소리를 듯고나서는 다시울음이 터지기시작하엿다. 고모는 그만 하던말을 뚝끈커버리고 잠간서서 룡자를 바라만보다가 [illegible] 방을나가버렷다.

조금잇다가 룡자와 고모는 집을데리고 병원으로 향하엿다. 면차길을 내여노흐면 전후이마정이나되는길을 걸어야 병원에를오는데 그이마정의길을 것는것은 룡자에게 용이한일이 아니엇다. 룡자는쉬々거리며 거오병원에를왓다. [illegible]

룡자는 그만한처니 오려는 슬픈철을 잠자코하고 몸을바다에 카칩드러카 어려애커린「엉々울기를 시작하엿다.

한편으로 룡자의고모는 커음자와의 생각하든것과는 룡자와 병호가 자긔의집에 온후로의되여가는일이 이상한것을보고 맘에 불평이생겻다. 더구나 세말에 혜자부인이와서 울고간것을 보고나서는 더욱맘엔 불안이생기고 괘씸하게 생각이되엿다.

「룡도도지 무슨명문인지 모르겟네」

하고 고모는청이나서 혜자부인이 도라갈째에 인사도잘아니하엿다.

ㅡ문득 커ㅡ편방에서 『웅々』하는 울음소리가 들녓다. 고모는 역시 청이벌컥나서

「자ㅡ이런……」하고 룡자의방으로 누구를 크게책망이나할드시 뚜벅々々 거러갓다. 그는방에서 드러서자

「자ㅡ이런 울긴왜울어!」

하고 청가신소리로 말하엿다.

그러나 고모는 밤낮조치못한사람은아니다. 룡자나 병호나혜자부인에게 대해서 조곰이라도 의식잇게 따커서 불평한생각을 들그런 좀스런운녀자는 아니다. [illegible]

慰安活寫會 大阪在住同胞

大阪에잇는 朝鮮人協會에서는 七月二十三日二十四日兩日間 下午七時부터 大阪市北區天神橋筋六丁目市立市民館에서 朝鮮同胞慰安活動寫眞大會를開催하고 在阪朝鮮人兄弟全體를慰安의目的으로 無料觀覽케하엿는데 順序는如左하엿더라

- 實寫 「古城의秘密」 全一卷
- 實寫 「斬新한血盟」 全一卷
- 喜劇 「머리의移合」 全二卷
- 活劇 「路傍의勇者」 全五卷
- 正劇 「獨身者同盟」 全五卷
- 正劇 「山中의家」 全二卷
- 音樂 朝鮮女學生合唱 全五曲
- 番外 朝鮮人男女學生外에도 朝鮮餘興 [illegible] (大阪)

崇德昇格內定 校舍建築入札

平壤崇德學校는 [illegible] 教會의經營으로 公州永明學校와 [illegible] 崇德學校를 高等普通學校로 昇格케하기로 內定되엿는데 [illegible] 校舍建築入札 [illegible] (平壤)

布哇學生歡迎 新義州에盛況

布哇學生故國訪問團一行은 去二十三日午後五時에 安東縣에 到着하얏는데 當地에서는 歡迎會委員 [illegible] 當地男女人士와 各團體代表 [illegible] 歡迎의意를表하고 [illegible] 同校에서는 [illegible] (新義州)

布哇學生團 到處同情

咸南府內의人士들은 布哇學生故國訪問團이 去二十四日當地를來 [illegible] 晩餐會를 [illegible] 하엿더라 (新義州)

仁川商議交通部會

仁川商業會議所評議員會는 [illegible] 交通部會를 開하고 [illegible] (仁川)

仁川府協議會續報

仁川府協議會는 去二十四日午後二時三十分부터 府會議室에 開會 [illegible] (仁川)

女子討論會 聽衆滿場盛況

平壤南山峴耶蘇教幼年主日學校에서는 [illegible] 七月廿三日午後八時 [illegible] 「成功의本은勤勉於本」[illegible] (平壤)

元通間不通 郵便은船便에

連日豪雨로因하야 安邊南川江이 汎濫하야 二十三日부터 通行이杜絶되야 元山通川間의郵便物은 便船으로遞送하더라 (元山)

螢雪會巡劇과 平壤의同情

螢雪會巡劇은 旣報와가치 去二十四日午後八時半부터 平壤第一館에 開演케되야 [illegible] (平壤)

德川市日貯金奬勵

德川金融組合에서는 [illegible] 貯金奬勵 [illegible] (德川)

崔翊龍遺骸到着

[illegible]

泰川讀者慰安講演

[illegible] (泰川)

正則學校에寄附

[illegible]

朴興植氏의原意

[illegible] (龍岡)

吉林新昌校卒業式

[illegible] (吉林)

水原에도少年軍

[illegible] (水原)

女苦巡講團에同情

[illegible] (江界)

普信男校新築立案

[illegible] (元山)

惠山鎭電話架設

[illegible] (龍川)

仁川佛敎堂上樑式

[illegible] (江界)

洞約會則으로禁酒

[illegible] (麗水)

平金學友巡講來到

[illegible] (仁川)

麗水青年討論會

[illegible] (城津)

基督青年定期總會

[illegible] (定州)

各地青年團體

城津青年討論會

[illegible]

코스모스討論會

[illegible]

鎭海蹴球大會

- 時日 七月二十八、九兩日
- 場所 鎭海公立普校運動場
- 參加金 一圓
- 抽籤 七月二十八日午前八時
- 主催 鎭海究學會
- 後援 東亞日報鎭海分局

第二回咸南庭球大會

- 時日 八月七日上午八時
- 場所 私立咸興永信校코트
- 參加組 三組式
- 參加金 三圓
- 申込所 新昌里東亞日報咸興支局 (電話三一九番)
- 申込期 八月四日까지
- 抽籤日 八月六日下午八時(申込所)
- 主催 東亞日報咸興支局

商況

仁川期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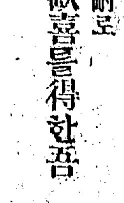
[illegible]

張最根

[illegible]

毛生藥 후미나인의 效에 對하야 急告

[illegible]



六十日間의 忍耐로 今日의 歡喜를 得한 吾

東京 美富子

[illegible]

獨逸홀모나製藥會社의 精力增進靈藥

사치린

生殖機能衰弱患者의 福音 [illegible]

ゼーターアスヂカタ

타카지아스타ー제

强力消化素

內外醫家의實驗的推奬有 粉末・錠劑有。各地有名藥舖에서販賣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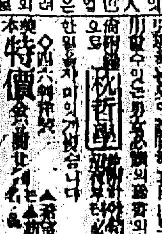
東京市京橋區 三共株式會社

愈々好評 忽拾三版

男女 情慾四十八手의 研究

稀代의珍書

[illegible]



發賣本舖 東京藥院

華書로申請하시면詳細說明書進呈

東京 東華交易公司

好文社

ClibPDF - www.fastio.com